



“컬러누에 구경하세요” 2일 전주시 완산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열린 ‘누에·곤충 특별전시회’를 찾은 어린이 관람객들이 컬러누에를 만져보고 있다. 이번 특별전시회는 오는 15일까지 컬러누에, 뒤엉벌 등 다양한 곤충들을 가까이 들여다보고 만져볼 수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

영화와 함께 봄을 만끽하라

‘봄의 영화축제’인 제19회 전주 국제영화제가 3일 개막한다. 전주시 고사동에 위치한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은 배우 김재원과 채수빈이 진행을 맡는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전세계 46개국에서 초청된 246편이 개봉된다.



비대 있다. 특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이학준 감독의 ‘굿 비즈니스’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변화 분위기와 맞물려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흥행한 한국영화를 다시 만날 수도 있다는 점도 이번 영화제의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힌다.

지난해 전주에서 처음 소개되자마자 큰 성공을 거뒀던 다큐멘터리 영화 ‘노무현입니다’에 이어 올리는 어떤 작품이 성공하게 될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 개막작 ‘야키니쿠 드래곤’이 가장 주목받는 작품으로 꼽히고 있다.

이제 맞춰 1987, 리를 포레스트, ‘침묵’이 다시 상영하는 가운데 ‘강철비’의 주인공인 배우 정우성과 양우석 감독이 오는 4일 전주에서 야외무대인사를 갖고 영화팬과 만난다. 한편,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12일까지 진행된다. /기동취재반

새만금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새만금위원회, 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서
개발공사, 설립위 주도 범정부 협업체계 강화
농생명용지 9430ha 2020년까지 조성 추진

새만금위원회는 2일 새만금33센터(전북 김제시 소재)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 농생명용지 조성현황 및 향후계획,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을 논의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 ▲정부위원11명(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차관,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라북도지사), ▲민간위원 13명(이형규 민간위원장, 공동수 경기대

교수, 김태근 청주대 교수, 김현숙 전북대 교수,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실장, 남궁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본부장, 이승우 군장대 총장, 이진애 인제대 교수, 장병권 호원대 교수, 조혜영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입지연구소장, 최중대 강원대 교수, 한화진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의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은 지난 3월 공사설

립 법안(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된 이후, 정부는 9월말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위원회(위원장: 국토부 1차관, 3.23 구성)에서 조직 설계, 채용, 출자, 정관 작성, 설립 등기 등 세부 과제별로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사는 선도 매립사업을 통해 스마트 수변도시를 조성하고, 용지매각 수익 등으로 후속 매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관광레저, 스마트 팜 등 부대 수익사업도 추진하여 새만금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수제 62.1km와 농생명용지 9,430ha를 새만금기본계획

상 목표인 2020년까지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농생명용지 9,430ha는 첨단농산업, 친환경농업 및 농업생태관광 등을 연계한 다양한 농업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구체적 토지활용방안은 올해 상반기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7년말 준공된 5공구 내 농업특화단지 700ha에서는 녹비작물 식재 등 임시영농을 2018년~2019년까지(2년 동안) 실시하여 지력을 증진시킨 후 2020년부터 본격적인 영농이 실시될 예정이다.

갯벌리 부지 884ha는 2020년 2월경 착수하여 2022년 9월 이전까지 매립완료하고 2021년 8월 프레갯벌리대회를 위해 일부 부지를 부분 준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바쁜 직장인들의 고민, 이곳에서 해결

전주 직장맘고충상담소, 6일까지
맘이랑 베이비페어 상담부스 운영

전주시 직장맘고충상담소(소장 신민경, 이하 상담소)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리는 ‘2018 맘이랑 베이비페어’에서 직장맘의 고민 상담을 위한 현장상담 부스를 운영한다.

이 기간 베이비페어 현장에는 상담소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가 화산체육관 부스에 상주하면서 출산·육아용품 구입 및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한 예비부모와 직장인 부모 등을 대상으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육아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줄 예정이다.

또한, 상담소 홍보를 통해 박람회 이후에도 직장생활 중 발생하는 모성권과 노동권 등의 침해와 관련 법적 허용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실질

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민경 전주시 직장맘고충상담소장은 “임신 육아의 직장맘들의 참여도가 높은 출산, 육아 박람회에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직장맘들은 다양한 정보수집과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현장에서 공인노무사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 직장맘고충상담소는 여성기관, 노동관련 기관, 직장맘 당사자 커뮤니티 등 여러 개소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직장맘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직장맘 3고충 상담지원, 홀플러스 완산·효자점에 찾아가는 노무사 무료 노동법률 서비스, 무료노동법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jjworkingmom.org)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8-9811~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성민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람과도시 함께 전주